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통문양 연구 분석

변영희*·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텍스타일(Textile)’이란 섬유디자인을 총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섬유 디자인, 직물 디자인, 서피스(Surface)디자인, 텍스타일 프린팅 디자인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텍스타일 디자인이란 직물에 여러 무늬와 색상을 부여하여 미적 요소를 창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텍스타일의 기본이 되는 패턴(pattern)은 무늬의 전반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개의 문양 즉, 모티브(motif)가 반복·배열됨으로써 미적 감동을 야기하는데 이는 패턴 속에 선, 공간, 형태, 색채라는 디자인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각 신체의 부위에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가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보는 사람들에게 착시 효과를 일으켜 착용자의 신체적 결합을 감추거나 또는 매력적인 부분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본문에서는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한 소재 즉, 모티브로써 한국의 전통 문양을 응용해보고자 하며, 우리의 전통 문양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텍스타일 개발은 동양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세계 패션 시장에 한국의 정체성(Identity)과 한국인의 독창적인 미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 된다.

이를 위해 전통 문양의 종류에 따른 올바른 이해와 특성을 바탕으로 전통 문양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하고, 세계 패션에서 보여지는 텍스타일 디자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대 패션의 텍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 전통 문양의 다양한 디자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응용하는데 있어 옵티컬(Optical) 패턴은 추상적이고, 비 묘사적이며, 단순한 반복적 구성을 통해 시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문에서는 식물문, 자연문, 기하문의 전통문양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한국 전통 문양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랜 세월동안 민족의 역사 속에 전해져 내려 오는 무늬의 양식과 총체를 의미하며, 동물과 식물 및 해, 달, 구름, 바람, 물, 바위, 산과 같은 자연의 대상을 통해 인간의 미의식을 형상화하고, 인간의 내적 염원을 표현해왔다.

먼저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해 접근해 볼 수 있는 전통 문양의 표현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란문, 당초문, 국화문 등의 식물(植物)문은 곡선의 특징을 살려 리드미컬한 형태로 발전시키며, 사실적인 형태에서부터 극도로 도안화된 형태까지 다양하게 시문해 볼 수 있다.

둘째, 구름문, 물결문 등의 자연(自然)문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연속적인 곡선의 구성으로 표현함으로써 율동적인 리듬감을 줄 수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yohee2@hanmail.net

셋째, 아자문, 번개문, 파문, 태극문 등의 기하학(幾何學)문은 가장자리를 연속 지어줌으로써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문양의 색채 경향은 지극히 수수하고 정적이 갖든 듯한 간색(間色)조와 이와 상반되는 원색의 현란한 조화가 있음을 볼 때 단색조와 다색 위주의 대립된 표현 방식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 패션에 적극 응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패션에서 주로 보여지는 텍스타일 패턴 경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여러 디자이너 중 Emilio pucci와 Missoni의 형태를 살펴보면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Emilio Pucci는 풍경과 이국적인 꽃 등의 동양적인 모티브와 여러 나라의 자연·건축 양식 등을 주제로 한 패턴 디자인을 선보여 왔으며, 색상에서는 deep purple, violet, red, blue, green, yellow 등의 강렬한 천연색에 따른 젊고 활기찬 이미지와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키는 파스텔 색조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그의 패턴은 전 후면이 다른 '비대칭적 프린트'가 특징으로 추상적, 기하학적인 유틸컬 패턴이 많이 보여진다.

반면, Missoni의 패턴은 직선, 사선에 의한 Zigzag, Stripe, Geometries, Tartan check 등 추상적인 것으로 '대칭적인 프린트'가 주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비대칭적인 문양과 다채로운 색채의 텍스타일이 많이 보여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색 사용에 있어 같은 계열의 색뿐만 아니라 서로 대비되는 화려한 색상들을 다양하게 믹스매치 시키는 것과 여러 형태의 선에 의한 기하학적인 무늬는 미소니 패션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의 문양은 그 자체로서 미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장식의 역할로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러 텍스타일 디자인 중 특히 유틸컬 디자인은 실루엣의 큰 변화 없이도 착시 효과를 일으켜 체형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를 위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미 상술 하였듯이 Pucci나 Missoni의 텍스타일 디자인은 '곡선과 직선'이라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여러 색채와 다양한 배치를 통해 무한한 형태로 응용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은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Optical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는 표현 요소의 굵기, 방향 등의 변화나 반복을 통한 착시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하므로 문양의 단순화 과정이 요구되며, 색 사용에 있어서는 명도 대비의 단색조나 보색 대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즉, 전통의 색과 현대 패션의 흐름에 따른 트렌드 색상의 적절한 배합은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세계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패션 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 뿐 아니라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독창적인 텍스타일 패턴 개발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